

동산교회 영구 표어 및 영구 목표

일로표어
하나님 중심 · 성경중심 · 교회중심

영구목표
교육하는 교회 · 선교하는 교회 · 복사하는 교회

동산교회 2021년 교회 목표

- 성경을 연구하여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 복음을 알아가며 감사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 다음세대 교육에 힘써 미래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배 및 양육 시간 안내

| | | | |
|-------|----------------------|-------|-------------|
| 새벽기도회 | (주~금) 오전 5:00 | 영아부 | 주일 오전 11:00 |
| 주일 1부 | 오전 9:00 | 유치부 | 주일 오전 11:00 |
| 주일 2부 | 오전 11:00 | 중·초등부 | 주일 오전 11:00 |
| 오후찬양 | 오후 2:30 | 중고등부 | 주일 오전 9:00 |
| 수요밤 | (하계) 오후 7:30 (동계) 7시 | 청년부 | 주일 오후 1:00 |
| 금요밤 | 오후 8:00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00 |

◇ 목요 성경연구 강좌
매주 목요일 저녁 7:30 (3~6월, 9~11월)
개인 성경연구(Personal Bible Study) 방법론

◇ 토요 복음신학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00 (3~6월, 9~11월)
복음:십자가,믿음,칭의 심화 강좌



섬기는 분들

| | |
|-------------|--------------------|
| 원로목사 : 김재호 | 시무장로 : 김순호 장정국 조월구 |
| 담임목사 : 홍순용 | 박상귀 최흥기 이승하 |
| 부목사 : 장세훈 | 김수남 이병희 이연호 |
| 심방전도사 : 이은희 | 김영광 |
| 교육전도사 : 이 훈 | 이창준 노희철 문영석 |
| 찬양대지휘 : 문선영 | 최수복 문용섭 김홍길 |
| 피아노 : 박인애 | 박상철 |
| 황예진 | |

동/산/소/식

[1] "코로나19" 거리두기 발표에 따른 예배안내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 주일 1,2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수요 밤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예배를 드리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금요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2] 실시간 예배 안내

실시간 영상예배는 주일 1부 예배로 드리며, 매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영상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수요 밤 예배 역시 동일합니다. (홈페이지 참고)

[3] 선교사, 교우 통령

- ① 최동식 선교사, 이임복 선교사 : 7월 21일(수) 인도네시아로 출국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② 퇴원 : 이순자A 권사 - 7/16일(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 ③ 개업: 민동일 집사 "(주)나풀리온 인터내셔널 코리아"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46 평산빌딩 702호

▣ 모임 및 예고

- ① 7월 정기 당회 : 오늘 1부 예배 후 오전 10:20분 / 장소 당회실
- ②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준비와 실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파송·후원 선교사 및 후원 교회와 기관

- [파송선교사] 캄보디아(김재호선교사) 인도네시아(최동식선교사)
일본(천수경선교사) 태국(박세혁선교사)
- [후원선교사] 아이티공화국(김영화선교사) 브라질(김세은선교사)
- [후원선교기관] 총회GMS(이성화목사) 미주 OMTC(김찬곤목사)
평서노회GMS(백병기목사) NGO만나재단(이상돈목사)
- [후원교회] 새일을 행하는 교회(이성우목사)
대마동부교회(이충환목사) 한민족사랑교회(최금호목사)
- [후원기관] 동대문경찰서 교경협의회(송준인목사)

교회설립일 1955.10.10.

2021년 표어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가는 교회 (제 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원로목사 : 김재호 담임목사 : 홍순용

서울시 은평구 사가로 190 무상아파트 후문 Tel 2247-7615 Fax 2247-0148 www.neodongsan.or.kr
(사가정로 20길 46)

주일오전예배

인도: 홍순용 목사

1부 / 오전 9:00

목도 다 갈 이
※ 찬송 주기도문송 다 갈 이
※ 교목문 NO 29. 시편 65편 다 갈 이

인도: 하나님의여 찬송이 사온에서 주를 기다리이며
회중: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인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옥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회중: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우리의 하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인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회중: 주의 품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인도: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회중: 땅을 둘보사 물을 대어 심히 운탁하게 하시며
인도: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회중: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인도: 초장은 양 떼로 웃 입었고 끌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회중: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 신양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송 40장 다 갈 이

기도 1부/이승하 장로

성경봉독 계 20:1-6(p.신약 419.) 인도자

광고및교제 새가족 환영 다 갈 이

설교 “천년 왕국” 홍순용 목사

찬송 180장 다 갈 이

헌금봉헌 축복기도 인도자

축도 홍순용 목사

○ 다음 주 설교/ “사람의 멸망” (계 20:7-15)

○ 다음 주 기도/ 김수남 장로

제66권 29호
2021.07.18.



주일 오후 친양예배

- 코로나19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수요 밤 예배

저녁 7:30

인도: 흥순용 목사

| | | |
|------|---------------------|----------|
| 목 도 | ----- | 다같이 |
| 찬 송 | 80 장 | 다같이 |
| 기 도 | ----- | 한경희 사무관사 |
| 성경봉독 | 막 8:14-26 (p.신약 87) | 인도자 |
| 설 교 | “선명히 보게 하시는 예수님” | 흥순용 목사 |
| 찬 송 | 286 장 | 다같이 |
| 기 도 | ----- | 인도자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다음 주 기도: 문영숙 시무관사

새벽기도회

오전 5:00 인도: 흥순용 목사
말씀: 시편 1권 강해

금요 밤 예배

- 코로나19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 봉사위원

| 7 월 | 안내 및 현금 위원 | 교회 정문 | 1층 현관 | 본당 입구 | 예배실 |
|--------|---------------------|-----------|-------------|-------------|----------|
| | | 민동수 집사 | 김현철 시무집사 | 배금환 시무집사 | 김경숙 시무관사 |
| | | 정민미 집사 | 김진숙 시무관사 | 김영희 시무관사 | 정옥자 시무관사 |
| | | 제 수 | 봉 현 | | |
| | | 최현철 / 김수길 | 1부 윤대원 시무집사 | 2부 배금환 시무집사 | |

향기로운 예술

| | |
|-------|---|
| 실 일 조 | 김수길(이민숙) 박승용(이경애) 이병희(김귀숙) 이창준(김진영) 김배영 김양심 김점심 김진숙 문예담 서윤석 송정미 장은희 장혜정 조가현 최성경 최성연 최임숙 한옥숙 흥옥숙 |
| 감사언급 | 김영만(김기옥) 도기중(김행자) 박상철(노월선) 김길자 김성숙 김정선 박현숙 원은신 정옥자 조범조 한옥숙 |
| 맥주감사 | 구희순 김호선 서윤석 안이연 이순자B 조영미 |
| 생일감사 | 김지훈 김호선 |
| 복색언급 | 김순숙 |
| 선교언급 | 김귀숙 김배영 김수길 김양심 김점심 김진숙 김진영 박승용 박옥란 서윤석 양희순 원은신 이병희 이창준 이 훈 장경호 장은희 조범조 최임숙 최현주 한옥숙 한용숙 흥옥숙 |
| 건축언급 | 구희순 김경숙 김귀숙 김수길 김수남 김양심 김점심 김진숙 김행자 서윤석 이병희 이창준 이 훈 장은희 조범조 최임숙 한옥숙 |
| 증식언급 | 이순자B 장명숙 |
| 장악언급 | 한옥숙 |

*교회 현금 온라인 번호: **농협 100051-51-074800 (예금주: 통신교회)**

*현금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급식언급

① 신동준 성도(정민미 집사)님 가정 (법사에 감사)

[2021년 성경읽기]

| | | |
|-------------------|--------------------|----------------------|
| 1독 : 김길자 권사 (1독) | 2-3독 : 이옥주 집사 (2독) | 4독 : 김길자 권사 (2독) |
| 5독 : 김길자 권사 (3독) | 6독 : 장정국 장로 (1독) | 7독 : 이병희 장로 (1독) |
| 8독 : 박영희 권사 (1독) | 9독 : 정옥희 권사 (1독) | 10독 : 김귀숙 권사 (1독) |
| 11독 : 김경숙 권사 (1독) | 12독 : 이순자A 권사 (1독) | 13-17독 : 김길자 권사 (8독) |
| | | |

주/간/말/씀
천년 왕국
(본문: 계 20:1-6)

앞서 바벨론과 짐승들의 최후 심판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용, 옛 뱀, 사탄)의 최후를 오늘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천사가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천 년간 가두다(1-3).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용을 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게 됩니다. 천 년이 차도록 인봉하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천년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완전수를 세 번 꼽을 수 있는데 긴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의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천년은 또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결박되어 무저갱에 마귀가 갇히게 되는 것은 완전한 결박이 아니라 제한적 결박입니다. 마귀의 활동이 완전히 멎춘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결박되어 복음이 이제 각 나라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지 바로 불 뜻에 던져지지 않고 가두어 두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귀를 결박하게 되고, 복음이 전세계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최후 형벌을 받기 전에 잠시 가두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사24:21-22). 결국 천 년 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기간인 동시에 사탄이 갇혀 기내며 최후 심판 날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패배했지만 최후 심판까지 당하지 않았고, 활동성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구악시대처럼 막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복음 전파자들을 펍박하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도들은 첫째 부활로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다(4-6). 4절부터는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즉 통치자의 권위를 가진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왕노릇은 무엇일까요? 예베소서 1:20-23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통치가 부활로 성취되었다면 우리도 이 통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함께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명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마상 이 천 년 통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성도와 땅의 교회가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통치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전한 왕 노릇은 아니지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 노릇, 곧 왕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요한 계시록의 7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며, 이 복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가 이 첫째 부활의 복에 등참한 자들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의 참여한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9절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미 천년 왕국 가운데서 복음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왕의 통치에 참여함을 알고 한 주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질히 축원합니다.